

POLITICS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광주시-삼성전자, 지역 스타트업 육성 ‘맞손’

정준호, 12·29 참사 백서 발간  
‘현장 7일의 기록’ 6장에 편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지난 연말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서의 제목은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의 7일’이며 부제는 ‘사고 당일부터 시신 인도까지, 유가족의 시선으로 되짚는 기록과 과제’이다.

정준호 의원은 당시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에 머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백서는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 유가족 지원, 자원봉사 등 긍정적 평가와 중앙부처의 컨트론타워 기능 미비 등 성찰할 지점, 재발 방지대책 등 제언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7일간의 기록이며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 PDF 파일은 정준호 의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cyclops53>)에서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전국민적 아픔”이라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정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백서가 향후 재난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mailto:solee235@gwangnam.co.kr)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필요”  
정다운 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해 행정·복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운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사진)은 24일 복지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광주시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공감 없는 행정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는 유가족 26가구를 대상으로 조리된 식사를 가정에서 배달하는 ‘유가족 식사지원사업’ 예산 3000만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음식 전달 과정에서 유가족과 직접 마주하는 인력들이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유가족을 위한 ‘재난심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적 안내나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가족의 상황 변화와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장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광역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6가구, 100여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향후 복지, 돌봄,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유가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식사 지원 인력 교육은 아직 없지만, 돌봄관리사 대상 간담회는 진행했다”며 “식사 인력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서 ‘광주-삼성 스타트업데이’  
혁신기술 아이디어 보유 지역 창업기업 50곳 참여  
사업과 협력·투자유치 성과 공유…1대1 매칭 지원

광주시와 삼성전자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24일 북구 중흥동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삼성전자C-Lab,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데이’는 대기업과 지역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창업기업 50여개사가 참여해 기술 발표, 협력사례 공유, 1:1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광진 디메디 대표는 ‘카메라 기반 비접촉 디지털 바이오마커 측정 및 분석’ 사업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협력사례를 공유해 큰 주목을 받았다.

디메디는 삼성전자의 센서 OLED 기술을 활용한 심혈압 측정 알고리즘으로 임상 검증을 진행 중이다.

또 클리어(대표 김우열)의 ‘다공성 구조 기반 산소결합 조절 광촉매 기술 개발’, 더디멘션컴퍼니(대표 이레)의 ‘제품 디자인을 Text-to-CAD 또는 Sketch-to-CAD로 구현한 AI 소프트웨어’ 등 지역 창업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외부 투자자와 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C-Lab 자문위원이자 국내 최장수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C-Lab 아웃사이드(Outside)’ 공모전에 대비해 삼성전자 C-Lab과 지역 창업기업 간 1대1 매칭 상담도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4일까지 C-Lab 8기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하며, 광주지역 창업기업이 선발될 경우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기술검증(PoC) 협업, 전용 공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광주시는 24일 북구 중흥동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삼성전자 C-Lab,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자 C-Lab과 지역 창업기업 간 1대1 매칭 상담도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4일까지 C-Lab 8기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하며, 광주지역 창업기업이 선발될 경우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기술검증(PoC) 협업, 전용 공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전필규 삼성전자 창개발센터장은 “광주시의 창업지원 전략과 발맞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삼성 스

타트업 데이는 지역 창업기업들의 기술력을 외부에 알리고, 대기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mailto:yang00@gwangnam.co.kr)

## ■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새정부 부합…혁신·실용·현장·소통 총리 될 것”

세비 외 수의 의혹 제기  
“사회 통념 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 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슈퍼 복합 넛크래커(nutcracker·호두 깨는 기구) 상황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정 수행과 관련해 “실기하지 않겠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가 말씀의 정신에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국책 의원이 “총리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지방선거에서 서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장에 한 번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총리)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 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아당이 공식 수입인 국회의원 세비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직접 설명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국태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세비 이외의 수익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처가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 모은 잔액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에 비

추어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이들의 미국 코넬대 유학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 스스로 전 배우자가 전액을 냈다고 해명했다”며 “그래서 유학 비용에 한해서라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인 신고 내역 없다’이다. 학비랑 생활비는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석에서는 “프라이버시티”, “인권 침해다”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고, 여야 의원들이 소리를 높이며 반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mailto: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 대통령실에 AI 현안 건의  
AX실증밸리 에타면제 추진…내년 본격 착수 기대

광주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구축과 ‘AX 실증밸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 등 AI 현안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는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기업, 인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AI 핵심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공공 AI인프라 집적의 최적지”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신



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선공약 서울상 황실’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mailto:sky@gwangnam.co.kr)

전남산 프리미엄 개체굴 중국으로 첫 직수출  
바이어 발굴·위생증명서 지원 성과…사계절 생산 강점

전남도는 24일 고흥 녹동항에서 전남산 개체굴의 중국 첫 직수출 기념 상차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개체굴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4개월 내내 먹을 수 있어 계절적 제약이 적은 것이 강점이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도가 높고, 수출 시장에서도 계절 편차 없이 꾸준한 공급이 가능해 해외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 개체굴은 김에 이은 전남의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개체굴 생산자는 36여가 112ha로 전국 양식면적의 35.1%, 생산량의 15.3%를 점유하고 있다. 고흥에선 채종수확식으로, 신안에선 수평망식으로 프리미엄 개체굴이 생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 성과를 계기로 생산 확대와 가공 유통 현대화 등 김에 이어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신현국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중국 개체굴 시장 진출은 국내 양식굴 산업 동물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사전에 지원했으며, 해외 한인 이벤트 사업비를 지원해 수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섰다.

고흥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개체굴은 일 반 굴과 달리 육질이 단단하고 크며, 비린

내가 적고 식감이 탁월해 국내외 소비자 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개체굴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4개월 내내 먹을 수 있어 계절적 제약이 적은 것이 강점이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도가 높고, 수출 시장에서도 계절 편차 없이 꾸준한 공급이 가능해 해외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 개체굴은 김에 이은 전남의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개체굴 생산자는 36여가 112ha로 전국 양식면적의 35.1%, 생산량의 15.3%를 점유하고 있다. 고흥에선 채종수확식으로, 신안에선 수평망식으로 프리미엄 개체굴이 생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 성과를 계기로 생산 확대와 가공 유통 현대화 등 김에 이어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신현국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중국 개체굴 시장 진출은 국내 양식굴 산업 동물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사전에 지원했으며, 해외 한인 이벤트 사업비를 지원해 수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섰다.

고흥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개체굴은 일반 굴과 달리 육질이 단단하고 크며, 비린

전남농기원, AI ‘양돈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

14억 규모 국가 연구과제 선정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관)은 양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

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

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업을 통해 기술의 실용성과 상용화를 높일 예정이다.

정대영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은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mailto:gnnews1@)